

##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

안 현 의\*  
부산대학교

본 논문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 모델인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생성 배경과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이 모델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과 실무 현장에서 나타난 상담심리학의 과학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 간의 괴리, 그리고 연구자와 실무자 간의 서로 다른 패러다임의 사용 등이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효율적인 실행에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과 제언이 이루어졌는지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의 상담자 교육 현실과 과학자-실무자 모델 간의 차이를 제시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델로서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함과 더불어 상담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합의된 상담자 교육 방향과 상담심리학의 정체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주요어 : 상담자 교육, 과학자-실무자 모델, 상담 대학원

---

안현의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2002년도 부산대학교 학술 조성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교신저자 : 안 현 의,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51-510-2149 E-mail : hyunniahn@pusan.ac.kr

과학자-실무자 모델(scientist-practitioner model)은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지향해온 상담자 양성의 철학적 기반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상담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과학자-실무자’라는 말속에는 어떤 영역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방법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그 지식과 경험이 실용화되도록 하는 ‘응용 학문(applied science)’의 본질적인 성격이 잘 대변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자-실무자 모델은 상담자 양성의 교육 모델로서만이 아니라 상담심리학의 근원적인 학문적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주제로도 보아야 할 것이다.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진정한 구현은 대학원 과정이나 상담자 훈련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 양성 기관 밖에서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의 종사자들의 실제 활동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담 분야 종사자들의 실제 활동은 다시 상담심리학이라는 학문의 변천 방향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 분야에서 어떠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배출할 것인가는 결국 그 분야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떠한 성격을 지닐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과 같다.

처음에 과학자-실무자 모델은 미국에서 임상심리학 대학원 교육의 이상적인 모델로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모델은 곧 상담심리학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지난 수 십 년 동안 학계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하여 재확인되거나 수정되어 왔고, 오늘날의 상담심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처음 시작된 곳에서 그 동안 어떻게 변천해왔고 지금까지 어떠한 논의가 있어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상담과 심리치료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그 동안 상담 전문가의 교육과 관련하여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일부 언급되어 왔고(예, 이규미, 오익수, 김진숙, 장재홍, 2001; 김계현, 1997; 이재창, 1996), 비록 과학자-실무자 모델이라는 구체적인 틀 속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천학문으로서의 상담심리학이 이론과 연구, 그리고 상담 실체가 통합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상담자 교육에서 그 세가지 요소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전문가들 간에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이규미, 오익수, 김진숙, 장재홍, 2001; 이형득, 김계현, 김선남, 이숙영, 유성경, 1999). 하지만 과학자-실무자 모델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지닌 문제점과 그 적용 가능성, 그리고 우리 나라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의 발달적 단계에 과연 이 모델이 원형 그대로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비판적인 고찰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처음 어떻게 생겨났고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역사적 소개를 우선 하고, 그 동안 과학자-실무자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상담자 교육 과정과 상담심리학의 전반적 분야에서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와 국내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의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적용 방안을 언급하려 한다.

####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생성과 변천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시초는 1897년 Lightner Witmer가 미국의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아동심리학을 강의하면서 아동치료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실습을 통한 임상적 훈련을 병행한 것

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08년에 Vineland Training School에서 일년 간의 임상 실습 과정이 임상심리학 대학원 과정에 생긴 것이 최초의 인턴십이라고 할 수 있다(Routh, 2000). 이와 같은 초기의 임상 실습 과정은 일관성이 없고 영성하였는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치료 실습 훈련의 체계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세계 2차 대전이 종결하면서 심리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임상심리학이나 심리치료학을 다루는 대학의 학과들에서는 유능한 심리치료 전문가를 다수 배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원의 교과 과정과 전문가 양성 과정을 재정비해야 했고, 1941년부터 1949까지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응용심리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Applied Psychology), 미국보건당국(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그리고 재향군인관리국(Veterans Administration) 등이 참여하여 미국 내 임상 및 심리치료 대학원 교과 과정을 심사, 평가하여 전문가 양성 과정을 표준화하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의 결정체는 미국보건당국의 지원을 받아 1949년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에서 개최된 “임상심리학 대학원 교육에 관한 회의(Boulder Conference on Graduate Education in Clinical Psychology)”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심리치료 관련 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되었으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정신건강 센터의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도 포함되었다. 15일 간에 걸친 열띤 토론과 논의의 결과 심리치료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기능, 심리치료 전문가 양성 과정, 윤리적 기준, 그리고 인접 분야와의 연계적 관계 등을 포함한 심리치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0년에 회의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의 요지가 오늘날 일컫는 “과학자-실무자 모델” 또는 “Boulder Model”인 것이다(Baker & Benjamin, Jr., 2000).

Boulder conference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상심리학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한가지는 실무적 기능(professional service)이며 또 한가지는 연구의 기능(research contribution)이다. 우선 실무적 기능으로는 (1) 개인에 대한 진단적 또는 치료적 서비스의 제공, (2) 지역사회와 정신 건강 증진, (3) 수련생과 일반인들에게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심리치료의 수요가 사회적으로 높았던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편, 참석자들은 실무적 기능과 더불어 심리치료 연구의 필요성도 높이 강조하였다. 심리치료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치료의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심리치료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로 신뢰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이론들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기능으로 (1) 인간행동의 이해와 탐구, (2) 더욱 정확하고 신뢰로운 심리 진단법의 모색, (3) 효과적인 심리치료법의 개발, (4) 심리적 부적응의 예방 방법 개발 등을 내세우게 되었다(Raimy, 1950). 결론적으로 과학자-실무자 모델은 연구자와 실무자의 인력이 함께 필요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 두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회의가 명칭에서부터 임상심리학을 주축으로 하고는 있지만, 병리적 집단보다는 일반인의 정신건강, 그리고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관심이 많았던 미국보건당국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의 전반에 걸쳐 심리치료 전문가의 역할을 병리적 집단뿐만 아니라 정상

집단의 심리적 문제나 진로 문제 등, 당시 상담 심리학의 주관심 영역이었던 부분에까지 확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우기 회의의 참석자들은 임상심리학과 상담심리학 간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며 점차 두 분야가 병합될 가능성까지도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뒤이어 상담심리학이 과학자-실무자 모델에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Raimy, 1950).

Boulder conference가 있는 후 1951년의 North-western conference, 1964년의 Greyston conference 등을 거치면서 다시금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지지하였고, 대부분의 임상심리학 대학원과 상담심리학 대학원이 이 모델을 교육 과정에 채택하여 따르게 되었다. 하지만 1973년 Vail conference에서 과학자-실무자 모델은 정면 도전을 받게 된다. Vail conference의 참석자들은 심리학적 기초 지식과 연구가 중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심리치료자 양성 과정에는 실무적 교육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학자-실무자 모델 대신 ‘실무지향적 학자 모델 (practitioner-scholar model)’ 또는 ‘실무지향적 연구자 모델 (practitioner-researcher model)’을 대안적 모델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실무적 모델에 맞는 ‘심리학박사 학위’(Doctor of Psychology; Psy.D.)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실무자 교육에 더 중점을 둔 모델은 상담심리학 보다는 임상심리학 분야로부터 더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 이때부터 임상심리학 Psy.D. 대학원 과정이 미국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변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담심리학은 과학자-실무자 모델을 계속 추구하였다.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처음에는 임상심리학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모델에 더욱 충실한 것은 상담심리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 몇 차례 대규모

회의가 열렸고(예, 응용심리학 교육과정 위원회, 2000; 상담심리학 교육과정 위원회, 1996; 상담심리학 전국대회, 1987) 그 때마다 상담심리학의 대학원 과정은 그 비중을 어디에 더 두느냐에 따라 과학자-실무자 모델로부터 몇몇 변형된 모델을 따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담심리학의 정체적 기반을 과학자-실무자 모델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점과, 상담심리학 전공자들이 졸업 후 실무적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은 Psy.D. 과정 졸업생이나 임상심리학 전공자들과 경쟁을 해야 상황에서 상담심리학 분야에서도 실무자 중심 모델을 따르는 목소리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95년에 처음으로 상담심리학 Psy.D. 대학원 과정이 두 곳 생기는 했지만(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Our Lady of the Lake University), 그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상담심리학 대학원은 과학자-실무자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딜레마

과학자-실무자 모델은 성공적인 모델인가? Boulder conference 이후 50 여 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상담과 임상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지배적인 모델로 남아있는 점에서는 이것은 매우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실행 결과와 평가를 놓고 보면 아직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더 정확한 결론이라 하겠다. 그 동안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어떠한 문제점에 부딪혀왔고, 모델의 실행 과정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몇 가지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 과학과 실무 세계 간의 괴리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학문적 연구와 상담 실무 간의 원활한 상호교류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이는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실무를 하는 상담자인 동시에, 임상적으로나 상담실무적으로 밝은 연구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진정한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구현은 대학원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상담이나 임상심리학 분야를 구성하는 전문가들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는 어려웠다. 과학자-실무자 모델에 입각한 대학원 과정을 거친 상담자라 하더라도 일단 졸업을 하여 사회에 나가면 본인이 직접 상담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상담 연구 결과마저도 자신의 상담 활동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Barlow, 1981). 그 이유로는 상담 연구 결과가 실제 상담 장면에는 적용하기 어렵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실무적 장면에서 상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모형이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Haynes, Lemsy, Sexton, & Sexton, 1987). 그 뿐만 아니라 상담자들은 주업무가 연구 활동이 아닌 임상적 활동인 탓에 소속되어 있는 직업적 환경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재정적 배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상담자들이 연구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한다(Pfeiffer, Burd, & Wright, 1992).

상담 연구 결과를 그나마 읽고 받아들이는 상담자의 경우에도 폭넓은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에게 흥미있는 것들만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한가지는 대부분의 학술지 논문이나 연구 결과문들이 ‘연구자들만의 언어’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Drabick & Goldfried, 2000). 즉, 상담 실무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거나 상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연구 방법을 사용하므로써 결국에는 연구자만을 위한 연구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더욱이 연구물에 소개되어 있는 상담 과정에는 변인 통제라는 목적으로 피연구자들이 실제 장면에서의 내담자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일련의 선별 과정을 거쳐 선택되고, 연구 대상이 되는 심리치료법 또한 치료 매뉴얼에 따라 최대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된다. 이것은 통계에 근거한 연구 결과물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efficacy), 복잡다양한 문제와 개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실제 내담자를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가변적인 상담 장면에서의 효과성(effectiveness)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Goldfried & Wolfe, 1996). 이처럼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현저히 나타나는 연구자 세계와 실무자 세계 간의 괴리는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결국 실패한 것으로 일부에서는 평가받았다.

### 과학자와 실무자, 처음부터 동등한 관계인가?

과학자-실무자 모델은 대학원 과정의 교육 훈련의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고, Boulder conference에 참석한 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대학의 학과나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처음부터 실무보다는 연구 활동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편향된 모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많은 상담심리학과 전공자들이 재학중이나 졸업 후에 대학원 과정에서의 실무 교육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과(Tipton & White, 1988; Watkins, Lopez, Campbell, & Himmell, 1986),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생활의 주요 활동(critical incidents)으로 꼽는 것의 삼분의 일이 학구적, 연구 활동인 반면, 10%만이 실무와 관련된 활동이라는(Goodyear,

Lichtenberg, Baker, Perez, & Robyak, 1987) 사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즉, 과학자-실무자 모델을 따르는 상담심리학 대학원의 교과 과정이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최대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으며, 임상 실무적 기술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이라는 것이다(Bernstein & Kerr, 1993).

대학 교수들 가운데 본인이 직접 내담자를 만나는 실무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비록 개인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여 상담 실무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학 교수에게는 연구 활동이 주된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레 연구나 논문 출판과 같은 학문적 활동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되기 쉽다. 외국의 경우 대체로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대학원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무자 교육은 학교 외부의 상담센터나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센터, 또는 대학상담소 등의 실무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원생들의 과학자 훈련과 실무자 훈련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전담하는 것은 과학자-실무자 모델 내에서 그 두 역할을 통합하여 소화해 내는 역할 모델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연구에 치우친 교육을 받은 상담심리학 대학원생들이 막상 졸업 후에는 모두 학문적 활동을 하게 되는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지 않다. 대학원 졸업 후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담심리학자들의 약 56% 정도가 지역 상담 센터, 병원, 사설 상담소 등의 실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29% 정도만이 대학에서 교수나 연구자로 근무한다는 보고가 있다(Yesenosky & Holahan, 1990).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에서는 갖 대학원을 졸업한 상담심리 전공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것이 개인상담 능력이라고 한 반면, 연구 활동은 비교적 낮은 중요도를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Birk & Brooks, 1986). 이처럼 상

담심리학 전공자들이 대학원에서는 연구 활동이 더 가치있고 중요한 것으로 훈련을 받다가, 졸업 후에는 실무 활동을 더 많이 접하게 되므로써, 결과적으로는 대학원 교육이 학생들에게 졸업 후 진로에 필요한 지식과 훈련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과학의 정의에 대한 불일치: 무엇이 과학인가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혼란을 겪은 이유 중 또 한가지는 무엇을 ‘과학’적인 것으로 보느냐 하는, 과학의 정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이란 쉽게 말하여 진리를 발견해내는 과정일 뿐 아니라, 무엇을 진리로 보느냐와 관련이 있다. 흔히들 과학이라고 하면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며 불변적인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과학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는가에 따라 찾고자 하는 진리도 다르고 진리 발견의 과정과 방법도 다르다. 그것을 과학 인식론 또는 과학 철학이라고 하며, 그 구체적인 체계를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근대 과학이 시작될 때에는 실증주의와 논리실증주의가 주된 패러다임이었고, 이후에는 구성주의와 같은 post-modernistic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Hoshmand, 1991). 실증주의나 논리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진리 또는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험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가설 검증을 거친 것이어야 하고, 관찰하는 현상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엄격한 통제를 통해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을 보다 순수한 형태로 추출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증주의, 논리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서는 절대적 진리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과학적 방법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그 절대적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본다. 통계적 도구의 이용, 양적 연구방법, 가설-연역적 접근,

현상의 일반화 등이 모두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의 산물이다. 반면, post-modernistic 패러다임에서는 하나의 진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것이 통제되어야 하는 방해 요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진리를 구성한다고 본다. 또한 발견한 진리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그것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질적 연구방법, 탈이론화, 귀납적 접근, 현상의 개인화 등이 post-modernistic 패러다임에서 강조하는 것들이다.

그동안 심리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에는 실증주의와 논리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다. 과학자-실무자 모델에서 ‘과학자’라는 용어에는 실증주의와 논리실증주의에 근거한 과학의 정의와 방법론이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왔고, 그 외의 지식 접근 방법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하지만 문제는 상담 실무자들의 지식 접근 방식이 많은 면에서 post-modernistic 하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들을 만날 때 일반화된 접근보다는 개별주의적 접근을 해야 하며, 보편적 이론의 틀에 개인을 맞추기 보다 개개인의 사례에서 고유한 이론을 창출해 내고,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위 ‘임상적 탐구방법(clinical inquiry)’은 실증주의적과 논리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Hoshmand, 1991; Hoshmand & Polkinghorne, 1992).

Phillips(1993)에 의하면 논리실증주의적 과학론(실험적, 객관적 방법에 근거한 가설 검증)에만 의존하는 것은 과학자와 실무자 간에 영원히 일방적인 관계, 즉, 연구자(과학자)는 지식을 창출하고 생산하는 사람이고 실무자는 지식을 활용하는 소비자에 지나지 않는 관계를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과학이라는 것을 것처럼 좁게 정의하게 되면 연구자들은 필연적으로 한정된 연구 주제만 다룰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의 제한성으로 인해 실제 임상적 가치가 있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하였다. 결국 과학자-실무자의 통합적인 전문가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국내 적용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 상담자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은 상담심리학 분야의 내부에서 전문 상담자 양성에 대한 일관된 교육 철학과 방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재창(1996, 199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상담자 교육 과정이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여 대학마다 그 교육 내용이 다르고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에 같은 상담심리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도 어느 대학과 학과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그 개인의 전문성과 자질이 천차만별이다. 다시 말하여, 상담심리학 전공자들이 상담심리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교육 훈련을 받기보다는 소속되어 있는 교육학과나 심리학과 대학원 과정의 교육 이념이나 교과 과정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숙영과 김창대(2002)는 “전문상담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통틀어, 상담교육의 일반적으로 합의되는 목표와 내용 및 평가기준이 제시될 경우,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보다 질 높고 현장과 연결되는 교육을 받게 되는 한편, 교육의 주체인 교육기관에게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인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용이함과 학생들의 취업 및 자격증취득과 연계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표준화되고 일관된 상담자 교육 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나라의 상담심리학계에서도 과학자-실무자 모델을 주요 참조체계로 삼고 있다(예, 이숙영, 김창대, 2002; 이규미, 오익수, 김진숙, 장재홍, 2001; 이형득, 김계현, 김선남, 이숙영, 유성경, 1999; 이재창, 1996). 앞서 언급한대로 과학자 실무자 모델이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담 연구와 상담 실무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 통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추구해왔던 바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그것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지배적이다. 따라서 과학자-실무자 모델은 여전히 가장 이상적인 상담심리학의 모델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대신 이제까지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것을 보완하거나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안들이 나왔다(Stoltenberg, Pace, Kashubeck-West, Biever, Patterson, & Welch, 2000; Drabik & Goldfried, 2000; Lampropoulos, Goldfried, Castonguay, Lambert, Stiles, & Nestoros, 2002).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의 상담심리학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사회적, 환경적 여건이 미국과는 많이 다르기에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델을 그대로 쫓아가기 보다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과학자-실무자 모델을 변형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동안 제안된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개선 방안들을 소개하고 국내에서는 이 모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제안하려 한다.

### 응용 학문으로서의 상담심리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학원 교과 과정

우리나라에서 상담 전공자들의 대학원 이수 학점을 보면 응용 학문으로서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미국심리학회로부터 인가된(accredited) 상담심리학 대학원 석사과정의 이수 학점은 최소 48 학점(최근에는 상담심리학 석사 과정의 이수 학점이 60점으로 상향조정되려는 경향이 있음), 박사 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학점과 중복되지 않는 학점만 약 66 학점 정도인 반면, 우리 나라 상담심리 전공자들의 졸업 이수 학점은 소속 학과의 비상담 전공자들과 대부분 크게 다르지 않으며(예, 석사의 경우 24 학점, 박사의 경우 석사 과정 학점을 포함하여 60 학점 정도), 그 중에서도 소속 학과에서 지정하는 필수 이수 과목을 제외하고 나면 상담 관련 과목의 이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상담심리학 대학원 과정의 이수 학점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상담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기초적인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 학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자-실무자 모델을 따르는 박사 과정의 경우 상담과 직접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는 동시에 개인차, 인간 발달,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인지심리학, 인간 행동의 생물학적 기저, 이상심리학, 인간 행동의 문화적 이해 등을 포함한 기초 학문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미국심리학회에서 명시해놓았다. 이와 같이 기초 학문의 수련을 강조하는 취지는 상담 대학원생을 단순한 '상담 기술자(technician)'가 아닌 '상담 전문가(professional)'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상담 대학원 과정이 교육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다양한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와 같은 인간 심리의 기초적인 이해가 교과 과정에 부족할 수 있는 우



려가 있다. 심리학과와 경우 상담 대학원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비상담 과목들이 대체로 기초 심리학 과목들이므로 어느 정도는 보충이 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상담심리학 전공자의 이수 학점을 심리학 타전공자들의 이수 학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까닭에 기초 심리학적 지식이 여전히 불충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응용 학문으로서의 상담심리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원 내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하며, 기초 학문적 지식과 상담관련 지식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심리학과가 아닌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상담 대학원 과정의 경우에는 더 많은 기초 심리학적 지식에 대한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미국에서 상담 대학원의 이수 학점이 많은 또 다른 이유는 상담 실습(practicum 또는 internship)이 대학원 초기부터 거의 매학기 단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상담자 교육 과정이 너무 이론적이고 강의 중심적이며, 실습의 기회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라 실천 학문이라고 하는 상담심리학의 본질적인 특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이재창, 1996, 1994; 이장호, 1995).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전문상담가 양성 인턴십 과정이 제안되었으나(김정택, 도상금, 1993), 오늘날에까지도 인턴십 제도가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학원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실무자적 훈련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많은 대학원생들은 개인적인 시간과 돈을 들여 학과 과정 밖에서 상담 워크숍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교육을 받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상담실습 기회를 찾아 나서는 실정인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학과 과정 밖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워크숍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경우, 인기나 유행에만 치우쳐 연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상담 기법이나 내용을 내담자에게 활용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대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론적인 것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대학원 밖에서 습득해야 하는 과학자-실무자 간의 분리로 인식하므로써 이후에 통합적인 전문가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담심리학의 특수성에 따라 대학원 과정 안에서 상담의 이론, 연구, 그리고 실제가 다 함께 구현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 상담 대학원 전 교과 과정에서의 과학자-실무자 통합 시도

과학자-실무자 모델은 일부 과목에서만 언급될 것이 아니라 상담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모든 과목과 실습 과정 중에 그 중요성과 적용 방법이 강조되어야 한다. 김정택, 도상금(1993)의 연구와 이숙영, 김창대(2002)의 연구에서 제안한 대로 상담 대학원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와 실무적 능력을 함께 키우는데 필요한 과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와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방법론이나 통계와 같이 연구와 직결된 과목을 가르치면서 그 속에 상담 실무를 연관시키고, 개인상담, 집단상담, 또는 상담실습과 수퍼비전과 같은 상담 실무 과목에서도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결과의 통계적, 임상적 해석, 그리고 연구 결과의 적용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과목에 따른 구분보다도 전 교과 과정에 걸쳐서 상담심리학의 과학적이고도 실무적인 면을 동시에 훈련시키는 것이 더 의미있을 것이다. 그러므로써 대학원생들이 지식 습득의 과정에서 무엇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를 하

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과학적인 태도를 지닌 실무자로서의 훈련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과학자-실무자적 태도를 지닌 학과 내 교수나 겸임 교수가 대학원생의 상담실습을 담당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인턴십이나 practicum 등의 제도를 통하여 외부의 실무자들에게 상담실습 훈련을 일임해왔는데, 이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과학자와 실무자 간의 역할이 서로 별개의 것이고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여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서의 그러한 경험은 졸업 후에 두 영역 간의 이질감을 더욱 부추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원 과정에서부터 과학자-실무자 간의 통합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학과 교수들부터 그 역할 모델이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교수는 연구 활동 뿐만 아니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담 실무적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속적으로 실무 활동에 대해 개방적 태도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기적인 콜로키움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 실무자와 상담 기관의 전문가들, 상담 연구자들, 학과 내 타 전공 분야의 교수 등을 참석시켜 상담심리학의 과학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상담심리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지역 사회의 실무자들과 접촉을 시작함으로써 진로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일선의 상담 실무자와 대학 내의 연구중심 환경과의 연계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상담심리학 전공자들이 과학자적 사고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연구를 하는 학과 교수들이 특정 연구방법이나 연구 관점에 제한되지 말고 다양한 연구 방법론과 패러다임

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연구 결과에만 가치를 두는 기존의 학문적 분위에서 벗어나, 임상적인 가치가 있는 연구에 더 중점을 두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의 주제를 상담 장면에서의 임상적 관찰로부터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Kanfer, 1990). 또한 연구 논문에서 연구자들만 이해하기 쉬운 전문 용어나 기술적 표현들을 최대한 줄이므로써 연구의 내용이 상담실무자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tricker, 1992). 또한 대학원생들이 자신이 실습하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단일사례의 질적 연구를 해보거나 상담의 과정-성과 연구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연구방법과 통계 기술 과목을 이수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상담실습과 마찬가지로 “연구 실습(research practicum)”의 과정을 만들어 교수나 동료 학생들과 협력하여 실제 연구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만든다. 대학원생들이 어떤 과목을 듣던간에 그 과목의 분야와 연관된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선택하여 연구논문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연구 방법, 결과 해석과 적용에 이르기까지 과학자-실무자적 관점으로 분석 비판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실무적 중심 교육의 필요성

우리의 실정이 미국과 가장 다른 점은 우리의 사회 속에 아직까지 상담이나 심리치료 전문가가 굳건한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담 관련 학회에서 상담자 자격증제도를 만들고, 청소년 상담실이나 사설 상담소에서 상담 활동을 하는 실무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상담치료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상담 전문가와 병원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 그 외 사회의 여러 기관과의 의뢰체계가 잘 되어 있는

미국의 실정에 비한다면 우리 나라의 상담 실무가는 재정적으로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것은 내담자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상담심리학 분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상담심리학 분야가 성장해 가는 현재의 발달적 시점에서는 상담 실무적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담 실무적 기능이 강화되므로써 우리 사회 속에 상담심리학이 더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점차적으로는 상담 전문가의 지위가 제도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 실무가 활성화될 때 상담 연구도 활성화된다. 상담 실무 영역에서 연구할 자료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담의 연구 영역이 클 수가 없다. 외국의 상담이론과 지식을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 재검증해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한국적인 상담이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한국 상담심리학의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이기에 더욱 더 상담 실무 현장에서 나오는 연구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는 실무자 중심 모델이 적절할 수 있다. 실무자 중심 모델은 과학자-실무자 모델과 대립되는 모델이 아니라 여전히 과학과 실무를 함께 존중하되 단지 이 대학원 과정의 목적이 졸업생들을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박사 학위를 지닌 실무자로 배출한다는 점에서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박사과정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대학원 입학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부터 과학자-실무자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과학자-실무자 모델을 추구하는 박사 과정에서는 논리 수리적 사고와 통계적 기술, 연구자적 자질 등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학생을 선호하는 반면, 실무자 중심 모델에서는 그러한 연구자적 자질보다는

임상적 능력이나 자질을 지닌 학생을 선호하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입학생을 선별한다 (Stoltenberg et al., 2000).

실무자 중심 모델에서도 과학적 사고와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연구와 과학의 요소가 대학원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는가는 과학자-실무자 모델과 다소 다르다. 연구 과정에 실무적 지식을 포함시킨다는 전제를 지닌 과학자-실무자 모델과는 달리 실무자 중심 모델에서는 상담 실무 속에 연구 활동을 최대한 포함시킨다. 즉, 상담연구 활동과 상담실무 활동이 서로 별개인 것이 아니라, 실제 상담 장면에서 연구를 같이 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다(Stoltenberg 외, 2000). 이것은 졸업 후에도 상담 실무자들이 “임상적 과학자(local clinical scientist)”로 활동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Sticker, 1992; Stricker & Trierweiler, 1995). 여기서 임상적 과학자라는 것은 연구자가 과학적인 태도와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실 안에서 엄격하고 잘 통제된 기준에 따라 연구와 실험을 하듯이, 임상적 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실의 과학자와 같은 태도와 자세로 내담자를 탐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구현하고자 하듯이 상담 분야의 실제 장면에서 과학자와 실무자가 잘 통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결 론

지금 우리 사회에는 유능한 상담 실무 전문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자를 배출하고 그들을 통해서 상담심리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사회 속에 알리는 것이 상담심리학 분야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상담심리학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상담심리학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인접 학문분야와는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어떠한 모습의 상담자를 배출할 것인지, 일선에서 활동하는 상담심리학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상담심리학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일치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전공 학과들에서 상담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정작 무엇이 상담심리학인지, 어떤 과정으로 상담 심리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은 결국 상담의 수혜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상담 분야가 뿌리 내리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미국에서 어떻게 생성되어 변천하였으며, 그동안 어떠한 논의들이 있어왔는지를 소개하므로써 우리나라의 상담 대학원 과정에서 하나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하지만 과학자-실무자 모델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모델일 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상담 전문가들 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져서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철학적 관점을 택하든, 아니면 다른 대안적 모델을 택하든간에 우리나라 상담심리학의 고유한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김계현 (1997).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정택, 도상금 (1993). 상담가 교육에 대한 연구: 대학원석사과정 상담 교육의 현황과 전문 상담가 양성 인턴쉽을 위한 제언.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5(1), 13-29.  
이규미, 오익수, 김진숙, 장재홍 (2001). 청소년상담자 교육론.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숙영, 김창대 (2002). 상담 전공 대학원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교육학연구, 40(2), 231-250.  
이장호 (1995). 상담심리학 (제3판). 서울: 박영사.  
이재창 (1994). 전문 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 제도 활용의 문제점. 대학생활연구 12,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3-65.  
이재창 (1996). 전문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8(1), 1-26.  
이형득, 김계현, 김선남, 이숙영, 유성경 (1999). 청소년 상담자론.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Baker, D. B., & Benjamin, L. T., Jr. (2000). The affirmation of the scientist-practitioner: A look back at Boulder. *American Psychologist*, 55, 241-247.  
Barlow, D. H. (1981). On the relation of clinical research to clinical practice: Current issues, new direc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147-155.  
Bernstein, B. L., & Kerr, B. (1993). Counseling psychology and the scientist-practitioner model: Implementation and implic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1, 136-151.  
Birk, J. M., & Brooks, L. (1986). Required skills and training needs of recent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20-325.  
Drabick, D. A. G., & Goldfried, M. R. (2000). Training the scientist-practitioner for the 21st century: Putting the bloom back on the ro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327-340.  
Galassi, J. P., & Brooks, L. (1992). Integrating

- scientist and practitioner training in counseling psychology: Practicum in the key.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5, 57-65.
- Goldfried, M. R., & Wolfe, B. E. (1996). Psychotherapy practice and research: Repairing a strained alliance. *American Psychologist*, 51, 1007-1016.
- Goodyear, R. K., Lichtenberg, J. W., Baker, D., Perez, J. E., & Robyak, J. E. (1987). *An examination of critical incidents from the first year of counseling psychology doctoral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 Haynes, S. N., Lemsky, C., Sexton, R., & Sexton, K. (1987). Why clinicians infrequently do research.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8, 515-519.
- Hoshmand, L. T. (1991). Clinical inquiry as a scientific train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9, 431-453.
- Hoshmand, L. T., & Polkinghorne, D. E. (1992). Redefining the science-practice relationship and professional training. *American Psychologist*, 47, 55-66.
- Kanfer, F. (1990). The scientist-practitioner connection: A bridge in need of constant attent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1, 264-270.
- Lampropoulos, G. K., Goldfried, M. R., Castonguay, L. G., Lambert, M. J., Stile, W. B., & Nestoros, J. N. (2002). What kind of research can we realistically expect from the practition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 1241-1264.
- McConnell, S. C. (1984). Doctor of psychology degree: From hibernation to realit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5, 362-370.
- Pfeiffer, S. I., Burd, S., & Wright, A. (1992). Clinicians and research: Recurring obstacles and some possible solu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 140-145.
- Phillips, B. N. (1993). Challenging the stultifying bonds of tradition: Some philosophical,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applying the scientist-practitioner model. *School Counseling Quarterly*, 8, 27-37.
- Raimy, V. (Ed.) (1950). *Training in clinic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Routh, D. K. (2000). Clinical psychology training: A history of ideas and practices prior to 1946. *American Psychologist*, 55, 236-241.
- Stoltenberg, C. D., Pace, T. M., Kashubeck-West, S., Biever, J. L., Patterson, T., & Welch, I. D. (2000). Training models in counseling psychology: Scientist-practitioner versus practitioner-scholar.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8, 622-640.
- Stricker, G. (1992). The relationship of research to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7, 543-549.
- Stricker, G., & Trierweiler, S. J. (1995). The local clinical scientist: A bridge between science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50, 995-1002.
- Tipton, R. M., & White, G. L. (1988). Factors relating to professional development in beginning graduate students in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6, 111-127.
- Watkins, C. E., Lopez, F. G., Campbell, V. L., & Himmell, C. D. (1986). Contemporary counseling psychology: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01-309.
- Yesenosky, J., & Holahan, W. (1990). *A survey of Division 17 members: The attitudes of statistically*

*derived subgroup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원 고 접 수 일 : 2003. 3.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3. 8. 6

게 재 결 정 일 : 2003. 9. 5

K C I

## **A Discussion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Scientist-Practitioner Model in Korea**

**Hyun-Nie Ah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 literature review on the scientist-practitioner model, describing how the model was created and developed and what issues were discussed up to date. The split between the science and the practice in graduate program as well as in the real world, and the different paradigms between the scientists and the practitioners were some of the problems that the model has been criticized for. Strategies to deal with such problems were discussed. The paper discusses how the scientist-practitioner model relates to the counselor training and education in Korea, also suggesting ways to adapt the model to fit the current situation. It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a consistent dialogue among the professionals in counseling psychology regarding the training, the real life application, and the future of counseling psychology in Korea.

*Key Words : Counselor education, Scientist-practitioner model, Counseling graduate school*